

나주시, 스마트농업연구회 발족

나주시가 농업분야 혁신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 농업' 확대 보급을 위한 '나주시스마트농업연구회(회장 박종석)'를 정식 발족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최근 농업기술센터 다목적강당에서 '나주시스마트농업연구회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농업은 자동화 설비 및 정보통신기술(사물인터넷, ICT)을 운집, 축사 등에 접목시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스마트폰, PC를 활용, 작물과 가축 등 생물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할 수 있는 과학기반 농업 방식이다.

특히 생육 및 환경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를 기반, 최적의 생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력 등 농업 경영비를 절감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농업기술센터 다목적강당에서 발족식 가져

스마트팜 구축 및 확산 위한 농업인 연구모임



앞서, 나주시농업기술센터는 스마트 농업체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청년, 후계농 등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컨트롤러 자가 제작 과정, △농업 ICT 기술교육 등을 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해 실시했으며, 농업인 소모임 활동을 지원, 회원 간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연구회 발족을 통해, 스마트농업에서의 환경 계측, 제어 등에 대한 농가 자가 진단 및 해결 능력 향상은 물론, 농업 환경,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신규 농가들과 기술을 공유,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회는 이날 발족식과 병행해 '관비 및 방제기 자가 제작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관수 설비의 간단한 연결을 통한 간이 관비 및 방제가 가능한 이동형 관비방제기를 자가 제작 활용하는 교육으로 소형 펌프를 이용한 기기 활용을 다각화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화순 백아산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등산로에 14점 설치

화순군은 최근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찾는 백아산 일대의 주요 등산로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지점번호판 14점을 설치했다.

국가지점번호판은 산악·해안 등 건물 없이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을 격자형으로 구획해 부여한 통일된 고유번호다.

번호판은 재난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경찰·소방 당국 등의

신속한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

군은 백아산 주요 등산로 코스를 중심으로 300~700m 간격으로 14점을 설치했다.

아직 설치하지 않은 등산로 코스도 현장 조사를 통해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지점번호판 설치 지역을 확대해 군민의 안전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영광군, 예비군 대상 정책 홍보

인구·청년·일자리·결혼출산

영광군은 지난 13일 영광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60명을 대상으로 인구·청년·일자리·결혼출산 정책을 홍보했다.

이날 영광군은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 청년 마을로 사업, 청년 드림 UP 321 프로젝트 등 청년일자리 사업과 청년 취업활동 수당(월 50만원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등 청년복지 분야 사업

을 비롯해 청년학교,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등 청년정책 사업 전반을 안내했다.

또한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첫째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 최고 3,500만원), 임신부 교통카드 30만원 지원, 청년 희망다짐통장(월 10만원 지원), 청년창업자금 신용보증 사업 등을 홍보

하며 예비군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영광=서희권 기자



장흥산 블루베리, 동남아 수출 본격화

장흥군이 대표작목으로 육성중인 블루베리가 지난 18일 말레이시아 수출길에 올랐다.

이번 수출은 장흥군과 농가들의 꾸준한 노력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신선농산물 선도유지 기술지원이 더해져 2017년에 이어 2년만에 성사됐다.

1차 수출물량은 생과 600kg으로 유통업체를 통해 말레이시아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이후 현지 반응을 살펴며 베트남 등 수출국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

다 장흥군은 블루베리 수출이 지속된다면 국내 공급 및 가격안정은 물론 농가 소득면에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공제품 등 부가까지 향상을 위한 산업화 기반조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흥군은 지난 2017년 전남농업기술원으로부터 '전국 제일의 1시간 1특화작목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장흥=송호빈 기자

함평 나산면, 취약계층 하절기 생활물품 지원 방문 상담

함평군 나산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정천수, 이하 지사협)와 연계해 21일까지 취약계층 58가구를 방문하여 안부살피기 및 하절기 생활물품을 파악한다고 19일 밝혔다.

물품지원 대상자로는 29개 마을 이장으로부터 생활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 58가구를 추천받았다. 중위소득80%이하 대상자를 나

산면 맞춤형복지팀에서 선별해 복지사각지대발굴 민간협력지원인 나산면 지사협위원들과 마을이장 등으로 구성된 병예사회복지공무원이 함께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한다.

이번 하절기 생활물품 지원 사업은 나산면 지사협에서 지난해 함평군 국향대전과 올해 내비축제

기간 동안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인 착한가게를 운영하여 얻은 후원수익금과 국도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재원으로 지난달 2분기 지사협 정기회의시 수익금 활용방안 심의를 거쳐 생활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각 가구별 욕구에 맞춘 냉방기전 및 생활용품을 무더위가 오기 전 오는 7월 5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유익한 함평군 나산면장은 "지역민이 주축이 된 민간협력단체인 나산면 지사협에서 착한가게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이웃이 이웃을 돕는 마을복지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어려운 이웃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함께 하는 것이 불품을 지원하는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 이런 민간연계 복지활동을 지속적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안심케어 IoT@엄니어디가?' 확대

장성군, 주민들 큰 호응

장성군이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기술을 이용해 독거 어르신과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장성형 안심케어 IoT@엄니어디가?' 사업을 주민들의 큰 호응으로 확대 추진한다.

장성군은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의 '2018년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사업(공감기득)' 공모사업에 '장성형 안심케어 IoT@엄니어디가?' 프로젝트가 선정되었으며, 진원면 영신마을의 독거 어르신과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

장성형 안심케어 IoT@엄니어디가? 시스템은 독거 어르신의 가정에 인체감지 센서, 온·습도 센서, 비온 등 스마트기기를 설치하고 마을 어귀, 주요 길목에 해당 스마트

기기와 통신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 어르신께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 스마트기기가 마을의 스스로 해결단과 복지담당 공무원, 타지의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상황을 전파한다.

촌각을 닦는 위기상황 시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상황 전파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어르신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큰 이점으로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힘입어 올해는 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총 11개 마을 190여 명을 선정해 누수 없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도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객지에 사는 자녀들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향우들의 애환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담양군, 농업인 안전 환경 만들기 최선

PLS·농작업 안전관리 교육



담양군이 '안전한 농업인이 안전한 농산물'을 만드는 기치로 농업인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담양군은 농업인의 안전을 위한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사업과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PLS) 교육, 농작업 안전관리 교육을 추진한다.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사업은 농업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사고에 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조선대학교 작업환경의학과 이철갑 교수를 컨설턴트로 선정해 지난 4월과 18일 2차례 위험요소를 전문컨설턴트를 통해 파악하는 현장컨설팅을 진행했다.

또한 관내 2,00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재해, 농업인 미세먼지 대처 요령,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PLS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작업 안전의식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병창 담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추진 중인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조성과 농업인의 안전의식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소비자가 모두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화순 건강한 먹거리의 시작, 에서 힐링을 맛보세요!

파프리카, 복숭아,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느타리버섯, 신양삼